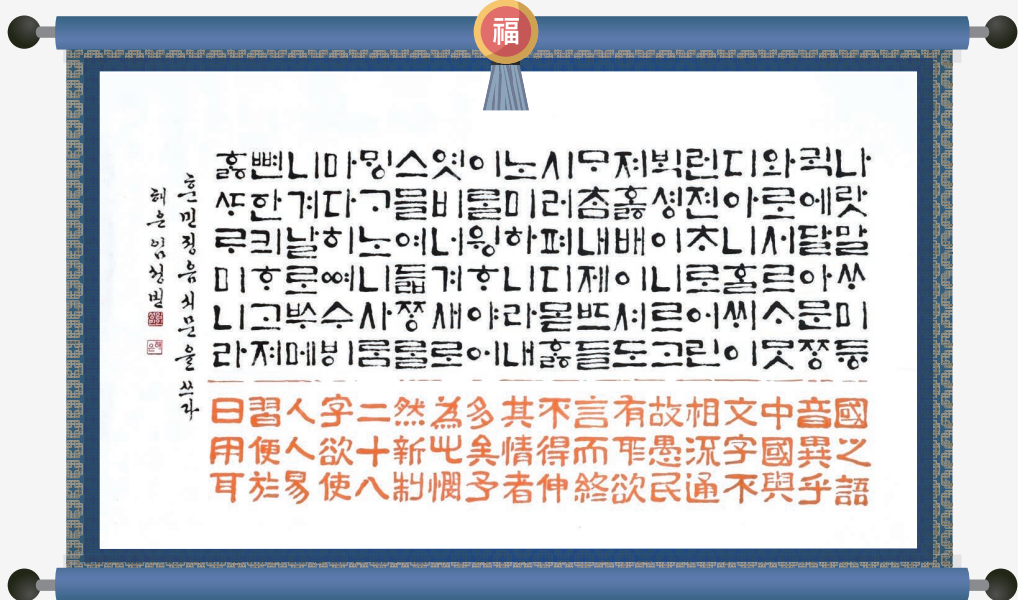


해은임성빈 선생의 훈민정음 작품을 감상하며

○ 고통 속에 피워낸 글자 ○

한시·글운호 이진호
한시·서예 해은임성빈



얼마 전, 뜻깊은 서예 작품 한 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을 모티프로 삼은 이 작품은 서예가이자 캘리그래피인 해은 임성빈 선생께서 긴 호흡과 정성으로 써 내려가신 것으로, 고전의 정신을 현대의 감각으로 절묘하게 되살려낸 작품이었습니다. 한지 위에 흐른 붓의 운율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한 시대의 고뇌와 울림이자 군주의 침묵을 해제한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작품을 마주한 순간, 저는 단순히 서체의 미감을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절절한 시대의 숨결과 정신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은 “愚民之有欲言而不得伸情者多矣(우민지유욕언이부득신정자다의)”라 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나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의 불편함을 넘어서, 백성이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감정을 통치자가 헤아리려 한 절절한 통찰의 언어입니다.

해은 선생의 붓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먹의 결은 단단하고 엄정하며, 자획의 배치는 깊고, 절제되어 있어 말보다는 마음이 먼저 읽히는 작품이었습니다. 검은 먹으로 새긴 서문과 붉은색으로 가필된 문장들은 마치 세종대왕의 음성과 백성의 침묵을 상징하듯 서로를 비추며 긴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은 자애로운 성군, 문화와 과학을 진흥시킨 르네상스의 임금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 면에는 피비린 권력투쟁과 침묵의 고통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비극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아버지 형제들의 투쟁과 죽음을 지켜보고, 민 씨 외가와 부인 소헌왕후의 친정 가문마저 아버지 태종에 의해 숙청되는 참담한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군주의 길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짙어진 죄책과 슬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종께서 한글 창제를 선택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채 침묵하지 않으셨고,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체계로 다듬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문자의 이름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이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세종의 침묵이 언어로 승화된 결과이자 백성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해은 선생의 작품을 깊이 음미한 후, 그 울림을 한 편의 한시에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은 것이 바로 **칠언 율시 《苦中花字》**, 곧 ‘고통 속에 피워낸 글자’입니다. 이 시는 세종의 생애와 감정,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의 본질을 시구마다 절절히 새기고자 한 작은 시도입니다.

훈민정음은 그저 한 문자의 창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임금의 눈물이며, 백성을 향한 절절한 기도이자 숨결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이 문자는, 슬픔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침묵을 깨고 소리를 되찾고자 한 위대한 전환의 산물입니다.**

해은 선생의 작품은 그 정신을 붓끝에 실어 보내오셨고, 저는 그 울림을 시로 옮겨보았습니다. 글자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루는 뼈대이자 혼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과 글자 속에, 그러한 고통과 연민, 그리고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사유와 울림을 담아낸 작품을 통해 저에게 다시금 언어의 본질을 되물게 해주신 해은 임성빈 선생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붓끝의 한 획, 한 점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도 오래도록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한시·글 운호 이진호(雲湖 李進浩)

- KBS 남산송신소 근무 중
- KBS 사군자회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

苦中花字(고통 속에 피워낸 글자)

痛刀悲歌淚滿寒 (통인비가루만한)

칼날은 아픔을 실어 슬픈 노래를 만들고,
눈물은 차가운 바람 속에 가득 고이고,

宮牆宿血冷如丹 (궁장숙혈냉여단)

궁궐 담장에 스민 핏자국, 붉게 굳어 차가움이 서려 있네.

妻家盡殞心如碎 (처가진운심여쇄)

처가 일족은 모두 쓰러져, 임금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慟氣迷天曉色殘 (통기미천효색잔)

비탄의 기운은 하늘을 가리어, 새벽빛마저 흐릿하도다.

獨坐寒燈慟斷啞 (독좌한등통단아)

찬 등불 아래 홀로 앉아 통곡을 삼키니, 소리조차 끊기고,

哀心鬱積語難安 (애심울적어난안)

응어리진 슬픔은 깊이 쌓여, 말로 풀어낼 길조차 찾기 어렵구나.

吾王抑鬱無詞訴 (오왕억울무사소)

임금인 나조차도 이 울분을 담은 글자가 없는데,

拙俗焉能解此寒 (졸속언능해차한)

우매한 백성들이야 어찌 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으랴.

한시·서예 해은 임성빈(海銀 任聖彬)

- 세종한글예대전 초대작가
- 행주서예 문인화대전 초대작가
- 목향회회원
- 캘리그라피 디자인협회 회원
- 동방대 서예 문인화 과정 12기 수료
- 서예 문인화 교육 강사 1급